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협력하는 의회

순천시 역사문화 유적 연계 도심관광 정책 제안을 위한

공무 국외 출장 보고서

2017년 8월



순 천 시 의 회

||| 실는 순서 |||

I. 출장 개요	1
II. 방문국 현황	3
III. 주요 출장 내용	4
IV. 정책제안 및 기타사항	21

순천시 역사문화 유적 연계 도심관광 정책 제안을 위한 공무 국외 출장 보고서

I 출장 개요

□ 개 요

○ 대상국 : 러시아

(하바로브스크, 블라디보스톡, 우스리스크, 아르츰시)

○ 목 적

- 러시아 연해주 일대 발해유적 및 항일운동 역사유적지 현장방문과 주변 문화관광 운영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리지역 역사문화 유적지 운영관리 방안과 도심 관광 연계 방안 정책제안

○ 기 간 : 2017. 7. 1(토) ~ 7. 5(수) / 4박 5일

○ 연수자 : 1명

소속	성명	성별	직위	비고
순천시의회 (의원)	이 복 남	여	의원	정책자료 제안사항 발굴

※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원 남도학 문화답사팀 동행

□ 주요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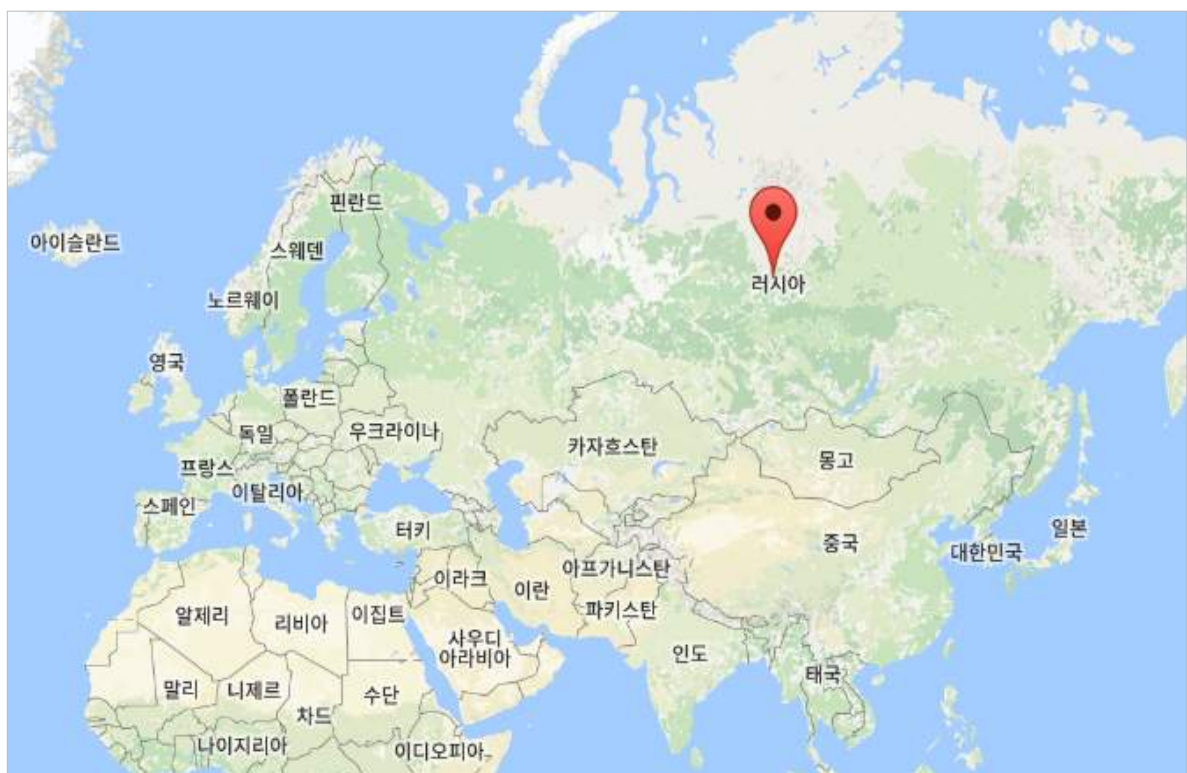
일자	출발지	도착지	주요 일정	비 고
1일 차 7. 01 (토)	순천 (인천)	러시아 (하바롭스크)	○ 인천국제공항 출발 12:25 ○ 하바롭스크 도착 16:10(현지시각)	■ 비행 소요시간 (약2시간 45분)
2일 차 7. 02 (일)	러시아 (하바롭스크)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 하바롭스크 항일운동 현장 방문 - 발해유적 전시 향토박물관 외 ○ 재래시장 및 아무르강변 공원 방문 ○ 시베리아 횡단열차 탑승	■ 열차 소요시간 (약14시간)
3일 차 7. 03 (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 블라디보스톡 항일운동 현장 방문 ○ 도심광장 및 거리 연계 문화관광현황 - 중앙광장, 아르바트 거리 외	■
4일 차 7. 04 (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러시아 (우스리스크)	○ 우스리스크 고려인 관계자 면담 - 고려인 문화센터 방문 ○ 항일현장 방문 - 이상설 선생 유허비, 최재형 선생 생가, 안중근 기념비 등 ○ 고려교육전문학교 방문 ○ 발해 옛 성터 방문	■ 버스 소요시간 (약 1시간 40분)
	러시아 (우스리스크)	러시아 (아르츰시)	○ 아르츰시 부시장과 간담회 - 시민문화센터 방문	■ 버스 소요시간 (약 40분)
	러시아 (아르츰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 블라디보스톡 항일운동 현장 방문 - 신한촌, 구개척리 외	■ 버스 소요시간 (약 1시간)
5일 차 7. 05 (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순천 (인천)	○ 블라디보스톡 출발 11:25(현지시각) ○ 인천 도착 12:35	■ 비행 소요시간 (약 2시간 10분)

II

방문국 현황

○ 러시아

- 수 도 : 모스크바
- 면 적 : 약 1,709만km²(한반도의 77.421배)
- 인 구 : 약 14,235만명(세계 9위)
- 언 어 : 러시아어
- 화 폐 : 러시아 루블 (RUB)
- 주요 경제산업 : 기계제조업, 화학산업, 경공업 등
- 정부/의회형태 : 연방공화제 / 다당제&양원제
- 종 교 : 러시아 정교(15%), 이슬람교(10%), 그리스도교
- 위 치



Ⅲ 주요 출장 내용

연해주(沿海州) 일대

시베리아의 동남단 흑룡강(黑龍江)·우수리강(烏蘇里江)·동해로 둘러싸인 지방으로 면적 16만 5,900km². 연해지방이라고도 한다.

원래는 숙신(肅慎)·말갈(靺鞨)·여진(女眞)의 땅으로 중국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1858년의 아이훈조약(愛琿條約)에 의해 청·러시아의 공동관리지가 되었다가, 1860년 북경조약으로 러시아령이 되었음. 러시아는 그 남단에 블라디보스토크(海參威)를 건설, 극동에 있어서 군사·무역의 근거지로 삼았다.

한말 이래 우리 동포들의 망명지로 이용되어 상당수의 교포가 이곳에 이주하여 항일독립운동을 전개, 1910년 연해주 교민이 독립군 결성을 결의했으며, 17년에는 김입(金立)·윤해(尹海)·문창범(文昌範) 등이 쌍성(雙城)에서 시베리아 교포를 망라, 전로한족회중앙총회를 조직하고, 18년에는 이동휘·김입 등이 하바롭스크에서 한인사회당을 조직하기도 했다.

뒤에 전로한족회중앙총회는 대한국민의회(大韓國民議會)로 개칭하고 19년 3월 17일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데 이어, 21일 손병희를 대통령으로 하는 임시정부의 수립을 선포했으며(노령임시정부), 또한 한인사회당도 이해 4월 본부를 블라디보스토크로 옮기고 고려공산당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만주의 북간도와 함께 특히 항일무장 독립운동의 근거지로서 해방을 맞을 때까지 우리 독립지사들의 활동무대가 되었다.



주요 독립군 활동지

발해(渤海)

698년부터 926년까지 한반도 북부와 만주·연해주에 존속하며 남북국을 이루었던 고대국가.

하바로브스크

러시아 극동부 하바로브스크 지방의 행정·산업·교통의 중심지이자 극동지방 최대의 도시. 우수리강(江)과의 합류점에 가까운 헤이룽강(江) 중류 우안(右岸)에 있는 요충지로서 시베리아 철도가 지나며, 헤이룽강 수운의 중심을 이루는 하항(河港)이 있다. 17세기 중엽 러시아 탐험가 E.P.하바로프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며, 현대적인 도시는 1858년에 군사전초기지로 건설되었고 1905년 시베리아 철도의 부설과 함께 급속히 발전하였다. 알래스카·일본·한국·중국 등과 정기항로가 개설되어 있다.

극동과 연안주의 역사, 풍속, 자연에 관한 자료 및 매머드 상아, 고대 원주민의 생활용품 등이 전시되어 있는 향토박물관(1896)과 적군의 극동전사에 대한 상세한 자료 및 일본·중국·소련군의 전투자료가 소장되어 있는 박물관이 있다. 의과대학·교육대학 및 많은 고등연구소가 있다.



□ 향토 박물관

러시아 지리학회 아무르 지부의 박물관으로 1894년 설립되었으며 1995년에 다시 꾸며서 개장하였다.

신관(1995년 개관)과 구관으로 나뉘며, 신관은 깨끗한 이미지, 구관은 고풍스런 이미지가 풍기며, 이 지역의 자연, 민속, 고고학, 역사 등에 관한 자료와 매머드의 상아, 고대 원주민의 생활양식에 관한 자료 등이 있다.

1층은 하바롭스크의 생태계와 1975년에 발견된 맘모스, 아무르 호랑이 등 박제가 전시되어 있음. 2층은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의 이주의 역사를 볼 수 있고, 3층에는 탐험가인 알제니에프와 델스부자라의 시베리아 극동 탐험사가 전시되어 있다.

박물관 입구에는 여진족 혹은 발해인들이 남겼다는 귀부와 비신이 있다.



발해인들이 남겼다는 귀부와 비신



향토 박물관



향토 박물관 내부 설명



향토 박물관 내부

□ 재래시장 및 아무르 강변 공원

하바로브스키 재래시장은 인근에 백화점이 자리하고 있어 방문자들에게 쇼핑의 다양성을 주고 있다. 과일가게, 반찬가게, 정육코너 등 우리나라 재래시장과 쇼핑센터에서 볼 수 있는 상품들이다. 특히 방한모가 눈이 띈다.

서울의 한강공원같이 하바로브스크를 따라 길게 흐르는 아무르강을 따라 만들어진 공원이 바로 아무르강 공원으로 시민들의 산책 코스로 가장 사랑받는 곳이다. 아무르강은 수세기 전부터 영험한 기운이 서린 강으로 원주민들은 이곳을 매우 아끼고 사랑한다고 한다. 공원에는 전망대가 있는데 전망대 앞에는 시베리아 철도를 처음 제안했던 무라비요프 아무르스키의 동상이 있다. 강가에서 시베리아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어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있다.

이 아무르강(흑룡강)을 경계로 러시아와 중국은 국경을 이루고 있다.



하바롭스크 재래시장



하바롭스크 재래시장 반찬가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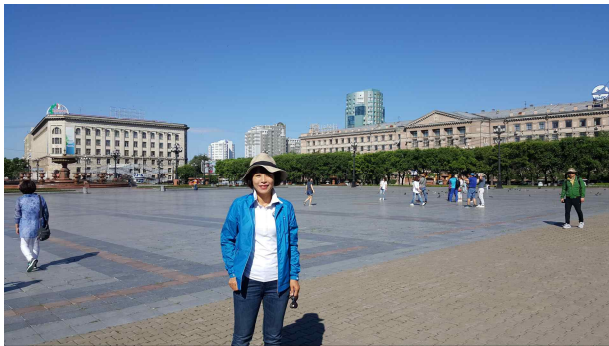


아무르 강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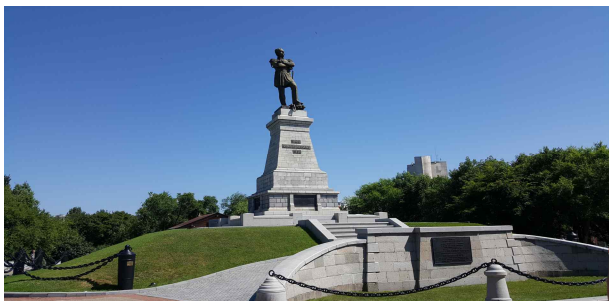
□ 광장과 동상

■ 레닌 광장

러시아의 상징적인 인물 레닌이 서 있는 광장. 하바롭스크시 중심에 자리한 광장으로 광장 안에는 청동으로 주조된 레닌 동상이 있으며, 광장 가운데의 분수는 방마다 조명을 비추어 아름다움을 뽐낸다. 매년 축제 때가 되면 각종 이벤트와 전시회 등이 열리며 여름철에는 수많은 꽃이 피어나 하나의 꽃 카펫을 이루며, 겨울에는 얼음 조각으로 공원을 단장한다. 하바롭스크 시민들에게 대표적인 휴식처 역할을 하며, 관광객들에게도 인기 만점인 곳이다. 광장 근처의 불거리로는 디나모공원, 흰색의 하바롭스크 시청 건물 등이 있고 도시의 중심 도로인 무라비요프, 아무르스키 거리를 통해 콤포몰 광장까지 연결된다. 분수광장으로 유명하며, 야경이 멋있다. 러시아에는 광장과 동상이 많은데 하바롭스크에는 ■하바롭의 동상 ■아무르스크 동상 ■성모승천사원 ■명예광장 ■전쟁기념비 & 영원의 불꽃 등이 있다.



레닌 광장에서



아무르스크 동상



성모승천사원 앞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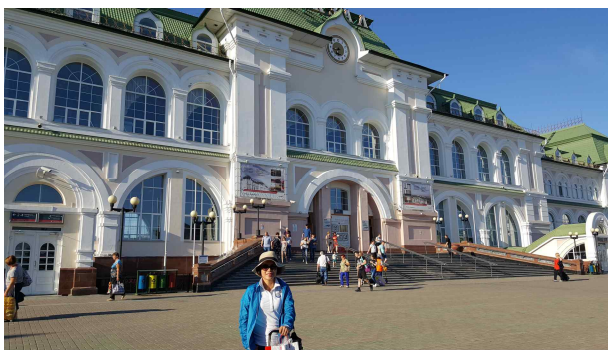
시베리아 횡단열차

□ 시베리아 횡단열차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의 길이는 9,198km, 종착역인 나호트카항까지의 총연장은 9,441km에 달한다. 이 철도는 과거 러시아 제국과 소련의 경제, 군사, 정치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개통은 시베리아 역사의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

시베리아 횡단선은 아시아대륙 동쪽의 끝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해 중국 북부를 지나 바이칼 호를 남으로 끼고 이르쿠츠크, 노보시비르스크, 옴스크, 예카테린부르크를 거쳐 우랄산맥을 넘어 모스크바, 그리고 길게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리고 핀란드의 헬싱키까지를 이어주는 철도이다. 6박 7일을 달려 종착역인 모스크바에 도착할 때까지 총 60여 개의 역에서 정차한다.

4인 1실로 하바롭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동하였다.



하바로브스크 기차역(열차 탑승 전)



블라디보스톡 기차역 도착

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보스토크란 ‘동방을 지배하라’라는 뜻이다. 동해 연안의 최대 항구도시 겸 군항이다. 소련 극동함대의 사령부가 있는 해군기지이며, 북극해와 태평양을 잇는 북빙양 항로의 중점이며, 모스크바에서 출발하는 시베리아 철도의 중점이기도 하다. 항만은 포트르 대제만(大帝灣)에서 남쪽으로 돌출한 무라비요프아무르스키 반도 끝에 위치하며, 시가는 해안에서부터 구릉 위로 펼쳐져 있다. 철도 중점인 임항역(臨港驛)의 북쪽이 시의 중심지구이다. 2010년 현재 인구 60만명 정도.

1890년대부터는 무역항으로서 크게 발전하였으며, 1903년 시베리아 철도가 완전히 개통됨으로써 시베리아를 횡단하여 모스크바와도 이어지게 되었다.

연해지방 최대 어업기지이며, 포경선·게 가공선·냉동선의 근거지이다. 겨울철에는 항구 안이 다소 결빙하지만, 쇄빙선을 사용함으로써 1년 내내 활동이 중단되지 않는다.

□ 기차역과 레닌공원

■ 기차역 -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종착역

블라디보스토크는 모스크바보다 중국, 일본과 더 가까우며, 시간대도 일곱 시간이나 차이가 난다. 이 역은 그야말로 철로 위를 달리는 마법 같은 마라톤을 시작하는 시베리아 횡단 특급열차 ‘노선의 끝’인 셈이다.

■ 레닌공원 - 레닌과 울브리너 동상

블라디보스토크 역사 맞은 편에 레닌의 동상이 있다. 1917년 세인트페테르부르크에서 10월 혁명을 시작하여 1923년 극동지역까지 혁명을 완수한 레닌. 9288킬로미터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종착역에서 계속 혁명을 지시하고 있는 것 같다.

□ 블라디보스톡 중앙광장 및 아르바트 거리

■ 블라디보스톡 중앙광장

중앙광장은 혁명전사광장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혁명이란 레닌이나 고르바초프같은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에 대한 염원을 담아 부르는 것이라고 한다.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구 소련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병사들을 위한 위령 기념물이 있으며 중요한 국경일 행사가 개최되는 광장으로 블라디보스톡의 대표적인 유적 중의 하나이다. 또한, 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흰색 고층 시청건물이 있다.

■ 아르바트 거리

중앙광장에서 가까운 곳에 아르바트 거리가 있다. 원래는 포키나 스트리트라고 하며 아르바트 거리는 비공식 명칭이다. 최초의 거리명은 북경거리였으나 1964년 해군 대장이었던 ‘포키나’를 거리명으로 삼아 ‘포키나 스트리트’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여느 유럽의 거리처럼 자유와 예술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이 거리를 걷고 있노라면 정말 내가 유럽에 왔구나를 절실히 느낄 수 있다. 이 거리는 우리나라 KT 회사에서 투자하여 만든 거리라고 한다. 그래서 이 거리를 KT 거리라고도 한다.



아르바트 거리



아르바트 거리 문화행사

□ 신한촌(新韓村) - 신개척리

일제강점기에 러시아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海蔘威)에 자리잡고 있던 한인집단 거주지. 일명 신개척리(新開拓里)라고도 한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까지는 국외독립운동의 중추기지 구실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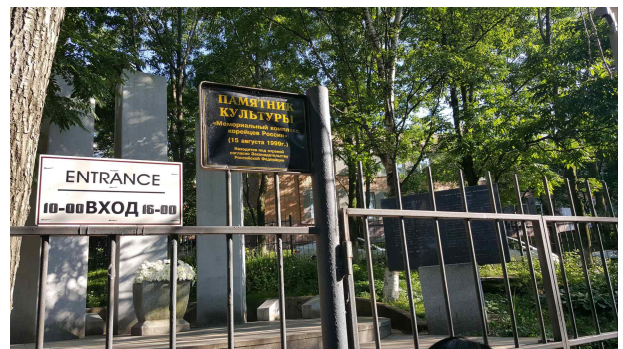
블라디보스토크에는 1870년대부터 한인이 점차 집중하기 시작해 1886년에 400명, 1891년에는 840여 명에 이르렀다. 한인 인구가 늘어가자, 시 당국에서는 1893년 한인들만 집단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구역을 설정하였다.

‘카레이 스카야슬라보드카(한인촌)’ 혹은 ‘개척리’라 부르던 이 지역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신한촌 성립 이전 한인집단 거주지로 비교적 시내 중심지에 위치해 있었다.

그러나 1911년 러시아당국은 페스트 창궐을 기화로 위생실행위원회 결의를 거쳐 개척리를 강제로 철거시켜 이 일대를 기병대 숙소로 삼았다. 그리고 한편, 5월 28일까지 시 서북편 외곽에 새로 설정된 구역으로 이주하도록 강제 조치하였다. 이곳은 구개척리로부터 북쪽으로 2km 정도 떨어진 산비탈로 높고 건조하며 아무르만을 굽어보는 경치 좋은 곳이었다.



신한촌 비석



신한촌 전경

* 고려인 강제이주(高麗人 強制移住)

1937년 소련의 극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고려인 약 172,000명이 스탈린의 명령으로 인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적으로 이주된 사건.

소련 인민위원회 및 공산당 중앙위원회 결정 No. 1428-326cc (1937년 8월 21일)에 따라서 극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모든 고려인들이 카자흐 공화국 및 우즈베크 공화국 등지로 강제이주 되었다. 이유는 이 지역에서 일본의 간첩활동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었다. 한국인과 일본인의 외모가 매우 유사하여 간첩 색출이 어렵다는 의견이 소련 지도부내에 있었고, 또한 일본은 1918년에 소련 땅을 침공한 적이 있으며, 1931년에는 이미 만주 지역을 장악하였고 1937년에는 중국 본토를 침공하였기 때문에 소련 극동 지역의 국가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점도 작용하였다. 강제이주로 인하여 고려인들의 생활기반은 극동 지역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전되었다.

1937년의 고려인 강제이주 조치는 소련에서 흔히 있던 민족재배치 정책의 일환으로서 그 중심에는 스탈린이 있었다. 고려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이주됨으로써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많이 당했던 것은 사실이다. 강력한 중앙집권력의 스탈린식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했던 강제이주 정책은 고려인들의 생활기반이던 극동 지역의 토대를 공동체적 관점에서 볼 때 완전히 붕괴시켰다. 극동 지역에 다시 고려인들이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1937년 이후 20년이 지나서 가능했지만 거주 인구수를 볼 때 이전과 같은 중심적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대신 17만여 명에 이르는 고려인이 카자흐 및 우즈베크 공화국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주하게 됨으로써 유라시아 중심부 지역이 한민족의 활동무대로 되었고, 고려인들의 뛰어난 역량으로 인하여 소련 사회에서 인정받는 민족이 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937년의 대규모 고려인 강제이주는 민족적 차원의 비극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유라시아 정책과 관련되어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된다.

이 때에 2,500여명의 지식인들이 처형되었고, 이주 과정에서 1만5000여명이 사망하는 등 한민족의 피해는 매우 컸다.

우스리스크

블라디보스토크 북쪽 약 112km 지점, 한카호(湖) 남쪽의 저지대에 위치하며, 동해로 흘러드는 우수리강 지류에 자리한다. 시베리아 철도와 하얼빈·무단강[牡丹江]·둥닝[東寧]을 연결하는 철도와의 분기점으로, 극동지역의 경제적 중심지를 이루고 있는 산업도시이다. 고려인 1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 **우스리스크 고려인 문화센터 방문**

연해주 일대의 고려인들을 위한 문화시설. 고려인 이주 1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2006년에 건축된 이 건물은 연해주 일대에 집중적으로 뿌리내린 고려 이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이다. 이주민의 역사와 이주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박물관과 고려인들이 만들고 계승해 온 식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식당. 그리고 고려인들의 전통춤을 감상할 수 있는 안무단까지 있어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80여 년 전 약18만 명의 고려인을 강제 이주시켜 척박한 땅을 비옥한 토지로 기적을 일군 고려인의 어픔과 독립군의 애환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고려인 문화센터 1층 고려인 역사관 '항일 영웅 59인'의 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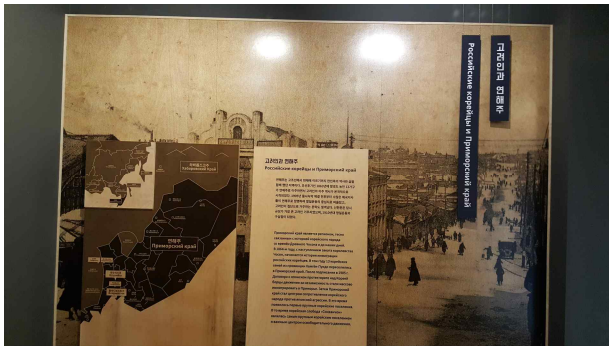
- 맨 윗줄 둘째가 강우규 노인동맹단원, 여덟째 김 알렉산드라 한인사회당 창건자, 둘째 줄 셋째 박은식 신한청년당 감독, 여덟째 신채호 대한독립청년단장, 아홉째 안중근 의사, 셋째 줄 셋째가 이동휘 고려공산당 국무총리, 여섯째 이상설 헤이그 특사, 열셋째 이동녕 임정 주석, 맨 아랫줄 여섯째가 최재형 권업회 총재, 열한째 홍범도 장군 등



고려인 문화센터(김 발렌쥬 관장과 함께)



고려인 역사관



고려인과 연해주



고려인문화센터(단체사진)

□ 항일 현장 방문

■ 이상설(李相高, 1870. 12. 7 ~ 1917. 3. 2.) 선생 유허비

1917년 3월 2일 이곳 연해주에서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은 동지들에게 조국 독립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자신을 이곳 우스리스크 수이푼 강가에서 화장하여 강물에 뿌려 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생은 자신의 육체와 함께 자신이 연구하고 쓰고 입고 있던 모든 자료와 물품들을 함께 태워달라는 부탁을 하여 현재까지 선생의 업적을 연구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훗날 선생을 추모하는 광복회와 고려

학술문화재단에서 2001년 10월 18일 러시아 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이곳에 비석을 세웠다.



■ 최재형(崔在亨, 1860. 8. 15 ~ 1920. 4. 5.) 선생 생가

함경북도 경원(慶源)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부친은 최홍백으로 노비였으며 어머니는 기생이었다. 그가 9세 때 함경도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 생계가 어려워지자 할아버지와 부모를 따라 연해주 지신허(地新墟)로 이주하였다. 지신허는 하산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연해주로 건너온 한인들의 촌락을 형성하고 있었다.

최재형의 집안은 극심한 가난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당시 하산에 있는 한인학교에도 다닐 형편이 되지 못했다. 그 때문에 최재형은 러시아 학교에 다녔고 러시아어와 문화를 익히게 되었다. 11세 때 집에서 가출하여 상선의 선원이 되었고 러시아인 선장의 도움으로 그 집에서 기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부터 최재형은 러시아명 '포트르 세메노비치 최'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그는 상선을 타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상페테르부르크까지 항해했고 이때 많은 견문을 넓혔다. 1877년 17세가 되던 때 블라디보스토크에 장사를 통해 돈을 모았으며, 부모가 있는 지신허 인근으로 돌아가 많은 땅을 사들여 농장을 운영했다. 당시 연해주에 정착한 한인들 사이에서 러시아어가 유창한 유일한 인물이었고 7년간의 선원생활로 러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문물에도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 최재형은 러시아 군대의 통역으로 일했으며 이 때문에 러시아 군관계에 폭넓은 인맥을 형성하였다.

러시아에서 고용한 한인노동자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한인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대변하였다. 러시아 군의 서기가 되어 두 차례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서 황제를 알현(謁見)하고 5개의 훈장을 받았다. 그리고 한인들이 살고 있는 안치헤남도소의 책임 관리직인 도헌(都憲)이 되었다. 그는 한인들의 자녀 교육에 높은 관심을 가졌으며 러시아어와 문물을 공부하도록 지원하였다. 그리고 고등소학교를 개설하여 학생들이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최재형은 도헌으로 연봉 3,000루블을 받게 되자 은행에 예치하여 그 이자로 매년 교포학생 1명씩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유학시켜 한인 인재양성에도 노력하였다. 그는 러시아인들에게 두터운 신임을 바탕으로 군생활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그 외 농장을 운영하며 다양한 사업적 수완으로 성공한 한인사업가로 명망이 높아졌다.

1910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간되던 《대동공보(大東共報)》가 재정난으로 폐간되자 이를 맡아 재발행, 격렬한 논조로 일제를 규탄하고 독립을 절규하였다. 또한 노우키에프스크 한족민회(韓族民會) 회장에 취임, 교포자녀들을 위한 한인학교를 설립하였다. 국권피탈 후에는 사태를 관망하며 동지규합에 힘쓰다가 1919년 4월 상하이[上海] 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에 임명되었으나 이를 사양하고, 그 해 11월 블라디보스토크의 신한촌(新韓村)에 본부를 둔 독립단을 조직하고 무장투쟁을 준비하였다. 1920년 4월 일본은 니항사건을 빌미로 연해주 일대에 출병하여 시베리아 혁명군과 한인의병을 대대적으로 공격했다. 최재형은 우수리스크에서 체포되었으며 이송 도중 탈주를 시도하였다가 총격을 받고 순국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 안중근(1879-1910) 기념비

을사늑약, 한일강제합병 등 조국 대한제국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연해주 곳곳에 흩어져 있던 의병들을 규합하여 두만강 일대를 누비던 일본군과 싸웠다. 이때 함께 했던 의병 가운데 하나이며, 최재형이 발행한 항일민족신문 <대동공보>의 통신원(기자)이 바로 안중근이었다.

□ 우수리스크 시민공원 - - 일명 거북이공원

우수리스크 시내 한복판에 자리한 시민공원은 공원의 한 가운데에 돌거북이 상(귀부)이 있기 때문에 ‘거북이공원’이란 별칭으로 불리고 있다. 지역 인근에서 발견된 2기의 귀부 가운데 1기이며, 다른 하나는 하바롭스크 박물관 입구로 옮겨져 전시되고 있다.

귀부만 남아 있고 비신이 없어서 그 주인공을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진족 혹은 발해 유물이라고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 고려교육 전문학교



최재형 선생 생가(시민공원 가까이 있다)



최재형 선생 생가터 방문



우수리스크 시민공원(돌거북이(귀부))



이상설 선생 유희비 앞에서

□ 우스리스크 발해 옛 성터

우스리스크 발해 옛 성터

	
우스리스크 발해 옛 성터	발해 옛 성터를 바라보며

아르츨 시

연해주에서 4번째로 큰 도시로 연해주 물류의 거점이 되는 인구 15만명 정도의 도시로 한민족 동포 및 고려인들의 거주율이 높다.

순천시의사회에서 아르츨시에 의료봉사단을 파견하는 등 민간단체의 의료협력 교류를 시작한 것이 밑거름이 돼 2017년 6월 20일 순천시와 아르츨시 간 우호관계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아르츨 시 문화센터 방문 및 간담회

순천시는 아르츨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헬스케어 및 의료관광, 농업

분야에 대해서 시가 보유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민간교류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시민문화센터 소개



시민 문화센터 앞에서 일행들과



아르츰시 역사사진첩



아르츰시 부시장과

IV

정책제안 및 기타사항

정책제안

□ 우스리스크의 지역 역사를 담은 향토박물관과 광장, 아무르 강변 공원이 녹지공간으로 잘 연계되어 여유 있는 도심관광 마련 필요

- 하바롭스크 최고의 파노라마를 즐길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향토 박물관과 극동 미술관 등의 고풍스런 건축물들이 공원입구 주변을 감싸고 있으며 계단을 따라 아무르 강변을 향한 도로에는 여러 카페와 전망대가 있음.
- 우스리스크의 재래시장과 백화점이 연결되어 있어 이용자 및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아무르 강변 공원에는 러시아인을 비롯하여 관광객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고 러시아 내에서도 오후 10시가 넘으면 편의점 등에서 주류 판매가 금지되어 있음.

□ 순천시 해외관광객이 주로 동아시아 국가들에 편중돼 있으므로 아르츰시 등 러시아 내 도시와 우호교류를 통해 적극적인 순천시 홍보를 통해 러시아로부터 관광객 유입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

□ 블라디보스토크 아르바트 거리에는 상설적으로 문화공연이 이뤄지고 있고 블 해변 광장에서 주류, 댄스 등을 즐길 수 있는 해변이 있어 해외 및 국내 관광객들이 성황임.